통권 제 224호
강남. 라 00943

2566
2022
06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시절 인연

마음의 등불
물은 낮은 데로 흐른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해지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6가지 마음 습관

불교 총지종 50년

영원한 진리와 함께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불교총지종

종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p198

생멸生滅없는 진리眞理

생멸生滅없는 그 진리眞理는 인과因果로서 나타난다. 현실現實은 유한有限하고 진리眞理는 무한無限하니 심성心性을 먼저 닦아 과학科學을 일으키자. 유상有相은 유한有限하고 무상無相은 무한無限하다. 물질物質이 발달發達하니 마음도 같이 닦자. 진리眞理는 체體가 되고 현실現實은 그림자라 체體가 곧으면 그림자도 곧고 체體가 굽으면 그림자도 굽는다.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종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지혜의 뜨락 _ 36

아름다운 부자의 비결

_ 방귀희

경전에서 찾은 지혜 _ 52

하나의 등불

_ 불교총지종 법장원

여행여담 _ 60

나의 제주 블루스 (上)

_ lovely찌이

목차

2566
2022
06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14 불교이야기
20 살다보면
26 산책
28 아름다운 세상
32 마음의 등불
36 지혜의 뜨락
40 십선성취
44 죽비소리
48 디딤돌
52 경전에서 찾은 지혜
56 동행
58 차향기
60 여행여담
65 육자의궤 염송
70 걸망에 담긴 이야기
72 함께보는 불교미술
74 뜻 바루기
76 컬러링 만다라세상
78 법회일정

불공 잘해라 - 제1장 시절 인연 _ 김천
참회懺悔 1 _ 화령 정사
물은 낮은 데로 흐른다 _ 이옥경
아침이슬 _ 김대곤
행복해지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6가지 마음 습관 _ 묘원화 전수
모두에게 봄이 따뜻한 것은 아니다 _ 김준섭
아름다운 부자의 비결 _ 방귀희
어디로 가야하나! _ 남혜 정사
얼굴 _ 김봉래
생각 알아차리기 _ 신진욱
하나의 등불 _ 불교총지종 법장원
아버지 전상서 _ 김종구 각자
차茶와 사찰에 관한 이야기 1 _ 김정애
나의 제주 블루스 (上) _ lovely찌이
사원에서의 예절 (上) _ 위드다르마 편집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는 용기 _ 법일 정사
불탑 _ 위드다르마 편집실
용사龍蛇 _ 김재동

말에도 색깔이 있다

한 이발사가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젊은 도제(제자와 같은 말) 한 명을 들였습니다. 도제 이발사는 열심히 이발 기술을 전수받았고, 드디어 첫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 첫 번째 손님의 머리를 열심히 깎았습니다. 그러나 거울로 자신의 머리 모양을 확인한 손님은 투덜거리듯 말했습니다.

"너무 길지 않나요?"

손님의 말에 도제 이발사는 답변도 하지 못하고 당황한 듯 서 있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스승 이발사가 미소를 지으며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짧으면 사람이 좀 경박해 보인답니다.
손님에게는 지금처럼 조금 긴 머리가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그 말을 들은 손님은 기분이 좋아져 돌아갔고, 이후 두 번째 손님이 이발소로 들어왔습니다. 이발이 끝나고 거울을 본 손님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말했습니다.

"너무 짧게 자른 것 아닌가요?"

이번에도 도제 이발사는 대꾸도 하지 못하자 옆에 있던 스승 이발사가 다시 거들며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 훨씬 경쾌하고 정직해 보이는데,
손님이 지금 딱 그렇게 보인답니다."

이번에도 손님은 매우 흡족한 기분으로 돌아갔고, 다시 세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손님은 이발을 마치고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 머리를 다듬어 막상 돈을 낼 때 불평을 늘어놓았는데 이번에도 스승 이발사가 나섰습니다.

"머리 모양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한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머리 다듬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요."

그러자 세 번째 손님 역시 매우 밝은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발소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네 번째 손님이 들어왔고, 그는 이발 후에 매우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참 솜씨가 좋으시네요. 겨우 20분 만에 말끔해졌어요."

역시나 도제 이발사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스승 이발사는 손님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손님의 바쁜 시간이 단축됐다니 저희 역시 매우 기쁘군요."

그날 저녁, 스승 이발사는 도제 이발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네. 어떤 일이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얻는 것이 있으면 손해 보는 것도 있지. 또한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나는 오늘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네에게 격려와 질책을 함께 하고자 한 것뿐이라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 드러나는 결과의 차이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조리 있게, 상황에 맞게, 기분 좋게, 현명하게 말하는 기술을 익혀 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편지 2006호〉 –

불공 잘해라
제1장 시절 인연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卽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4화 - 망명 (2)

1910년대 서간도의 생활은 참혹했다. 이주해 온 조선인들은 풍토병과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허다했다. 중국 지주의 수탈, 군벌과 도적떼의 약탈도 망명객들을 괴롭혔다. 이주민과 망명객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처음 한 일은 자치 기구를 만들고, 교육기관을 설립했으며 곧이어 독립군을 양성해 군사조직을 결성하게 된다.

손기현은 당시 망명객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았다. 동지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기꺼이 나서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자치기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나섰고 동포가 어려움을 당하면 몸소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때문에 1919년 상해 임시정부와 연관된 서간도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인 서로군정서 산하 조직인 한교공회韓僑公會에서 외교원外交員 신분으로 일하게 된다. 한교 공회는 밀양출신의 독립운동가 성좌 윤세용聖佐 尹世茸이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세운 임시정부 산하 무장독립투쟁 단체이다. 손기현의 집은 독립운동가를 위해 밥을 지어주는 일을 했다. 독립군이라면 누구나 손기현의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배 불리 먹고 용기와 힘을 내 일본군과 맞서 싸우자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

한교공회는 대성사 가족이 머물던 환인현桓仁縣 마권자馬圈子에 본부를 두고 서간도 곳곳에 지부를 두고 있었다. 설립 목적은 일제 침략기관을 습격하고 앞잡이들을 처단하는 일이며 만주 일대에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대성사 부친이 맡은 외교원은 러시아와 만주 군벌들과 교섭하여 독립군을 위해 무기 조달하는 임무였다.

러시아 내전에 참여했던 체코슬로바키아 군단, 일명 체코 군단이 해산되어 1920년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날 때 그들의 무기 대부분을 독립군들이 사들이게 된다. 대성사의 부친은 권총과 기관총, 탄약과 폭탄 등 다량의 무기를 독립군에 공급하였다.

이때 대성사의 나이는 12세로 망명길의 고초와 간도 땅에서 생존을 위해 겪어야 했던 숱한 고난을 경험한 덕에 과묵하면서도 진중한 성품을 키우고 있었다. 남관의 초가삼간 집은 밤이면 독립군들의 집회장소가 됐다.

어린 대성사의 눈에는 그들이 모두 장군이며 도인으로 보였다. 대성사는 당시의 경험을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화령 정사가 들었던 어느 겨울밤의 이야기는 인상 깊다.

부친의 동지인 독립군들이 모이면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대성

사의 모친은 아끼지 않고 끼니를 내놓았다. 옥수수에 감자, 때로는 조와 수수로 지은 더운밥은 메마른 시절 동지들의 주린 배와 가슴을 데웠다.

하루는 저녁을 먹고 늦은 밤까지 일제를 물리칠 계책과 작전을 짜던 독립군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지켜보던 대성사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얘야 탁주가 떨어졌으니 주막에 가서 이 주전자에 받아오려무나."

대성사는 의심 없이 일어나 주전자를 들고 문을 나서려 했다.

수염을 기른 독립군 중 한 사람이 대성사를 불러 세웠다.

"지금 밖이 춥고 밤이 깊었으니 멀리 갈 것 없다."

대성사에게 빈 주전자를 들고 있으라 하고는 엽전 꾸러미를 그릇에 던져 넣었다.

빈 주전자가 묵직해지면서 이내 막걸리가 가득 찼다.

어리둥절한 대성사를 보면서 어른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이내 하던 이야기들을 다시 나누기 시작했다.

대성사의 눈에 독립군들은 모두 도인으로 보였다고 한다. 이 일화는 환상 같은 요술이지만 어린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음에 삿된 바람을 세우지 않고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마음에 새긴 것이다. 이와 같은 환술幻術을 치물置物이라 부른다 하였는데, 대성사는 후일 이런 환술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독립군들은 총에 대해서도 알려주곤 했다. 대성사 형제는 독립군이 휴대하던 체코제 총과 러시아제 모신나강 소총에 해박한 지식과 실제 작동법을 꿰뚫고 있었다. 독립군이 어린 대성사 형제에게 이들 총의 특징과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는데, 대성사는 측근들에게 이때의 경험을 상세히 들려주곤 했다.

일제의 처절한 탄압과 살육 속에서도 3.1 운동이 한반도 전역과 만주 일대, 중국과 미주까지 교민이 살고 있던 전 지역에서 독립운동의 불꽃을 태우게 된다. 1919년 겨울 김원봉과 동지들에 의해 의열단이 조직되고 만주 전역에서 무장투쟁에 나서자는 의지가 퍼져갔다.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포수단과 독립군은 간도 땅 전역을 종횡무진 할 뿐 아니라 압록강을 넘어 일본군을 습격하는 전과를 올린다. 일제는 눈엣 가시인 무장 독립군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밀정들을 풀어 간도 일대 독립운동가 행적을 낱낱이 감시했다.

1920년 5월 1일자 독립신문 3면 서간도 소식란에는 이런 기사가 실려 있다.

"환인현 한교공회에 지난 7일 적 경찰 몇 놈과 중국 기마병 몇 놈이 별안간에 달려와서 공회임원과 기타 모두 8명을 체포하여 통화현 왜영사관으로 압송하였다."

그리고 통화현을 비롯해 서간도 곳곳에서 일본 군경의 체포와 수색 압수작전이 벌어진 정황이 실려 있다.

1920년 5월 1일 일제의 간도파견원이 내각총리대신과 경시

총감 검사총장 조선군사령관 등에게 전보로 보고한 만주지방 독립운동가 동향 보고에 따르면 대성사의 부친 손기현은 유하현 삼원보의 서로군정서 산하 독립단의 지단인 환인현 한교공회의 외교원으로 주요한 감시대상 인물로 기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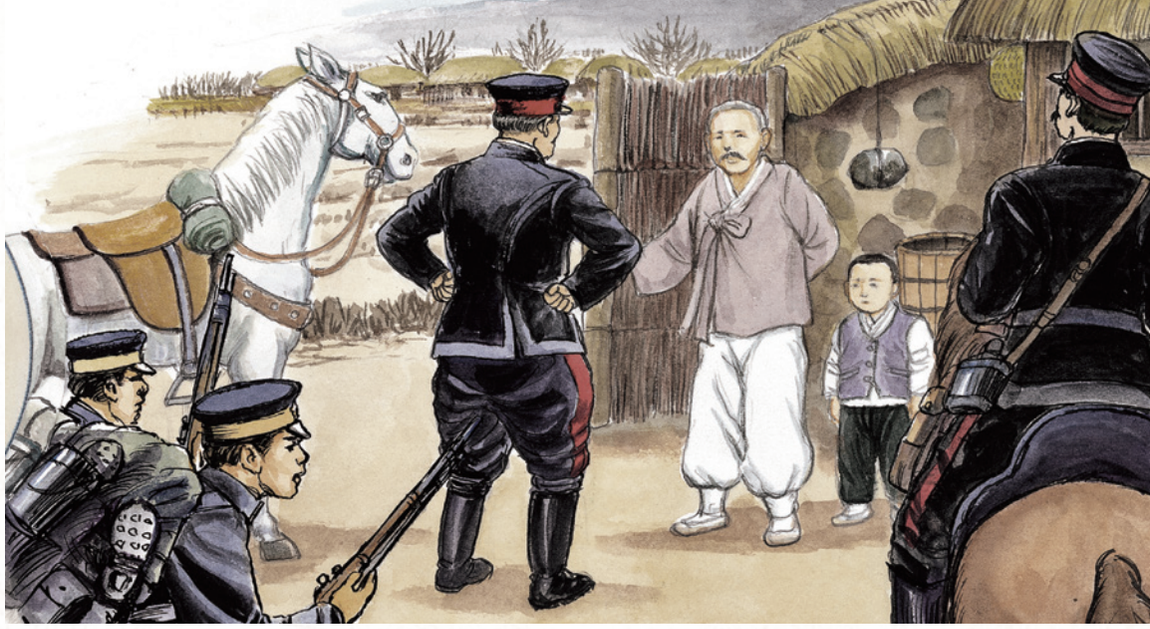
서로군정서는 이상룡을 사령관으로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이다. 이시영의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이 서로군정서의 독립군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서간도를 비롯한 남만주 일대의 독립 운동 세력들이 모두 모여 참여한 단체이다.

수천 명이 속한 군사조직으로 평안북도 한만 접경지대에서 일본군과 자주 교전을 벌였다. 압록강 넘어 삼수군의 일본군 주재소, 강계의 삼강주재소와 문옥면 사무소 등을 습격해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 친일파를 처단하는 전과를 올렸다. 일제의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여서 늘 감시와 토벌의 대상이 됐다.

1920년 6월 독립군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부대의 1개 소대가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종성군의 일본군 헌병 국경초소를 습격 격파하고 이어 출동한 일본군 남양 수비대를 만주로 유인하여 봉오동에서 전투를 벌였다. 전투의 결과는 일본군의 참패였다.

대한 독립군이 작전을 벌여 정규 일본군과 전투에서 압승을 한 역사적인 성과이다. 이는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의 자신감을 높이고 독립전쟁의 불길을 더욱 타오르게 했다. 일제는 그 보복으로 간도의 독립단체를 색출하는데 혈안이 된다.

1919년 조선총독부는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일명 제령



제7호를 선포하는데 오롯이 독립운동을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한 토벌과 처단 목적의 법률이다. 그 조목은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여 다수공동으로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 영은 제국 신민(조선인)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국내외 독립운동세력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제는 봉오동 전투의 참패 후 이 제령 제7호를 근거로 1920년 10월 철령 주재 보병 제 19연대와 공주령 주재 기병 12연대를 출동시켜 서간도 일대의 독립운동가 체포에 나섰다. 당시 만주 일대에서 벌어진 조선인 사냥을 경신참변이라 부른다.

1920년 10월 6일 재 안동 일본 영사관 퉁화 분관 주임 혼다本田는 일본 외무대신에게 독립군 체포 보고서를 보냈다. 1919년 3월부터 유하현 삼원보와 환인현 등 각지에서 설립된 무장 독립군 세력이 상해 임시정부와 러시아 지역의 세력과 결탁하여 조

선에 침투하여 전투를 벌이니 일당을 토벌하고 체포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총 97 명의 독립군을 체포했다.

보고서에는 독립군들이 사들인 총기가 러시아 보병총 90자루, 자동소총 60정, 미제 보병총 16정, 윈체스터 군용총 21자루, 중국제 엽총 160자루, 중국제 단발식 권총 111정, 영국제 보병총 14자루, 자동권총 40정, 러시아제 소총 170정, 러시아제 자동권총 230정, 영국제 소총 16정, 기관단총 12정, 윈체스터 군용총 32정, 미제 권총 20정, 중국제 권총 49정, 로시아 권총 등인데 이중 권총과 보병총 수 정과 함께 군복 80벌이 압수됐다. 상당한 무력으로 당시 서간도 독립군의 무장상태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구속자 90 여 명 중 손기현은 3번째 주요 인물로 독립단 외교원으로 식별되어 있다. 대성사의 부친은 즉시 안동 영사관으로 압송됐다. 대성사의 나이 13살 때 일이다.

체포 당시의 상황은 대성사의 어린 여동생이 생전에 남긴 회고담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평소처럼 다수의 독립군이 들러 옥수수와 감자로 아침을 먹고 떠난 후 일본군이 들이 닥쳤다.

말 탄 기병대와 소총을 든 수십 명의 일본군이 일본 경찰과 함께 사립문을 박차고 들어와 다짜고짜 총을 들이대고 독립군의 행방을 물었다. 일본군 우두머리가 말에서 내려 보며 물었다.

"독립군을 보았는가?"

대성사의 부친은 비웃으며 답했다.

"보지 못했다."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이 아니다."

"알고 왔는데 시치미를 떼는 것인가?"

"독립군인지는 모르겠고 굶주린 동포가 왔기에 밥을 먹여 보냈다."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간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집안을 부수듯이 온통 뒤집고 샅샅이 살폈으나 흔적을 찾지 못하자 대성사의 부친과 17살이던 대성사의 형을 끌고 갔다. 대성사와 모친, 그리고 어린 여동생 둘은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대성사는 어린 탓에 변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마음 깊이 상처가 남았다.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는 폭력과 자비 없는 악행이 얼마나 사납고 두려운 것인가를 새삼 깨달은 것이다.

헌병대에 끌고 가서 보름 동안 악랄한 고문이 이어졌다. 손톱에 바늘을 꼽아 넣고 집게로 손가락 관절을 모두 비틀었다. 거꾸로 매단 후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코에는 소금물을 쏟아 부었다. 피가 터지도록 몽둥이질을 한 후 정신을 잃으면 물을 뿌려 깨우고 더 큰 매질을 이었다. 더 참혹한 것은 아비의 눈앞에서 자식을 고문하고, 자식에게 아비가 고통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군은 오랫동안 밀정을 통해 대성사 부친의 활동을 눈여

겨 지켜보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의 부하로 독립단의 핵심인물이었기 때문에 서로군정서를 토벌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모질게 고문했던 것이다.

대성사의 부친이 입을 열지 않고 비밀을 지키는 사이 독립군들은 본부를 액목현額穆縣으로 옮기고, 독립군 대부분도 안도현安圖縣 방면으로 이동해 탈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처절하여 체포된 대성사의 형은 고문으로 인해 평생의 지병을 얻게 된다. 그래도 입을 열지 않아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자 큰아들은 보름 만에 석방되고 김기현님은 신의주로 호송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죄목은 제령 제7조 위반. 일제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손기현의 공적은 오래도록 잊혀졌다가 2016년 대통령 포상으로 훈장이 추서됐다. 그 또한 후손에게 알려지지 않아 묻혀졌는데, 다행인 것은 일대기 작업 과정에서 밝혀져 후손에게 훈장과 공적서가 전해지게 되고 독립유공자 기록에 정확히 전해지게 된다. 옥고를 치룬 것은 부친이었지만 모든 가족이 함께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 대성사도 가족도 모두 우리 광복의 치열한 씨앗과 빛이 됐다.

대성사의 형은 집에 돌아와서도 여러 날을 앓아누웠다. 현실은 더욱 잔인하게 닥쳤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형제가 고스란히 채워야 했다. 장을 보는 일부터, 독립 운동가를 위해 멀리 가서 전갈을 전하는 심부름까지 형제가 번갈아 해야만 했다.

어머니는 멀리 떠나보내는 형제의 뒷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고 한다. 대성사의 모친은 본디 불심이 깊었다. 남편이 옥고를 치를 때도 흐트러지지 않고 묵묵히 인욕으로 자리를 지켰다. 정의로운 일을 하다 불의한 이들에게 당하는 고초였기 때문에 보살심을 잃지 않았으리라.

새벽이면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현실을 받아들였다. 간도땅 독립운동가의 아내들이 그랬듯이 점점 기울어 가는 가세를 안간힘을 다해서 버텨냈다.

어느날 문득 대성사 형제는 어머니께 간청을 드렸다.

"어머니. 저희 형제가 결심했습니다."

"무엇이냐?"

어린 대성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저희도 독립군에 나가 싸우겠습니다."

대성사 모친은 자식들의 모습이 한편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옥고를 치르고 있는 남편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고 있는데 너희마저 떠난다면 이 집안을 지킬 수 있겠느냐?

정의를 위해 나서는 것은 말리지 않을 것이나 아버지가 돌아오신 후에 결정하자."

밀정들은 여전히 대성사 가족 주변을 기웃거리며 살폈고 간간히 일본군 헌병들도 불령선인不逞鮮人의 동태를 살피러 들러 가족을 괴롭혔다. 환인현에서 버티는 일은 점점 어려워져 갔다.

〈다음호에 이어서〉

참회懺悔 1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불교의 실천은 참회로부터

불교의 실천은 참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 그릇이 더러우면 어떠한 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놓지 않으면 지혜도 자비도 우러나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은 죄를 참회하지 않고 복을 바라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향을 올리고 초를 켜고 절을 한들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지 않고 번번스럽게 묻어버리고는 복을 바라본 들 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시 영겁으로부터 지어온 잘못을 끊임없이 참회하고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워야만 복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거듭되는 참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그릇을 깨끗이 해 놓아야만 거기에 복이 담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 의식의 첫머리에는 여러 가지 참회문을 읽습니다. 참회에 대하여 《보운경寶雲經》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에 상 · 중 · 하의 세 가지가 있다. 악업을 짓고 참

회하지 아니하며 부끄러운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을 싫어하지 않으면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몸으로 악한 일을 했지만 곧 뉘우치고 스승에게 드러내어 참회하며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음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여래께서 금지하신 것을 잘 지켜 중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범하는 것이 적으면 이것은 그 중 덜한 것이다.

이러한 경의 말씀은 죄의 무겁고 가벼움을 세 가지로 나눈 것인데 쉽게 말하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참회하지 않고 번번한 것이 죄가 가장 무겁고 잘못을 저지른 다음 참회하는 것이 그 다음이며 가장 좋기로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 중 낫다는 말씀입니다.

또한《열반경》에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지었더라도 덮어두거나 감추지 말라. 덮어두지 않음으로써 죄가 곧 가벼워지는 것이며, 만약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면 죄가 곧 소멸된다.

즉, 죄를 지어도 곧 참회하면 죄가 가벼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더 좋겠지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참회하고 용감하게 고치려고 하는 것은 불자로서 마땅히 지녀야할 소중한 마음가짐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잘못한 후에 고칠 줄 아는 것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명에 덮여있는 중생이기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 되는 일을 우선시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며 좋은 집에 살면서 돈을 펑펑 써도 그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인연화합으로 얽혀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덕을 보지 않고서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숟가락의 밥을 먹든 물 한 그릇을 마시더라도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묻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지나친 사치와 낭비로 다른 이들의 빈축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즐기는데 누가 뭐래?'하는 마음으로 주위 사람에게 눈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갑자기 돈을 번 졸부들이나 갑자기 인기를 얻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과도한 낭비와 사치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러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대중들의 노고를 모르고 함부로 돈을 쓰며 다른 어려운 이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의 경우에 인기를 얻

게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늘 대중에게 감사하고 대중을 위해서 희사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냥 그렇게 인기가 있고 돈을 잘 벌 줄 알고 방탕하게 살다가 비참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는 그것이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 권력이며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고 봉사해야 하는데 권력을 사유화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처지에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이 없었는지 살펴야 하며 잘못이 있을 때는 곧 참회를 하여야 다시는 그런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드러내어 참회하고 그러한 허물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항상 새로운 나를 만들어 나가야 복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재가 불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수행자들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오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도 계율을 어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비를 내세우는 불가에서는 계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율을 어겼더라도 참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승가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회로 말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계를 범하는 것은 물론 잘못이지만 그 잘못은 참회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지 계율을 범하고서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연한 줄로 생각하고 의기양양해 하는 것이 더욱 나쁜 태도라고 경전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칠 생각을 않고 도리어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그릇된 태도입니다. 이것은 그릇된 견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대중을 속여도 모를 것이라는 잘못된 견해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그릇된 견해를 가지는 것은 마치 병이 이미 골수에 박혀 치료할 약이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릇된 견해는 근본사상이 흔들리는 것으로 근본사상에 일단 문제가 생기면 다시는 참된 진리인 불법 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도와는 영원히 인연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하고서도 고치지 않는 것을 더욱 걱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잘못을 했더라도 부끄러워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닌다면 구제 받을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이 여기고 참회하는 것은 불법을 실천하는 중요한 덕목의 하나입니다.

살다보면

물은 낮은 데로 흐른다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대통령 선거에 이어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열기 못지않게 들끓는 불협화음에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오른다. 평화롭던 동네에 전무前無했던 일들이, 후무後無 해야 할 일들이 어떤 제동장치도 없이 속속 이어지면서 파란波瀾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는 소식이었다. 둘이든 셋이든 동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에 황황해 하면서 가공할 만한 일련의 사태에 분개하고, 그 작은 동네의 퇴행과 암울한 앞날을 염려했으며, 불화와 분란의 핵심에 있는 새로운 이장 K의 독단과 아집을 성토했더란다.

경쟁자의 사퇴로 인해 어부지리 격으로 동네일을 맡게 된 K는 취임 인사를 통해 막중한 소명감을 갖고 신명을 바쳐 일할 것을 엄숙히 다짐했다고 한다. 화합과 통합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며 끊임없이 소통하겠다, 주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행복한 동네를 만들겠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모두 쏟아 주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맑고 청렴한 일꾼, 따뜻하면서도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일꾼이 되겠다면서 말이다. 웬만한 지자체장 못지않은 거대한 포부와 다짐은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기대와 믿음으로 한껏 설레게 했다.

하지만 옛말이 그르지 않았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것이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그로부터 수개월이 흐르는 동안 K가 한 일이라고는 윤흥길 선생의 소설 〈완장〉에 등장하는 저수지 감시인처럼 하늘을 쓰고 도리질하는 행태뿐이었단다. 도시물 좀 먹고, 가방끈 좀 길다고 해서 툭하

면 도시에서는 말이에요, 배운 사람들은 말이지요, 하면서 어깨에 힘깨나 주었던 터라 애초부터 K를 탐탁지 않아 했던 주민들은 물론이려니와 도시 사람들 못지않게, 배운 사람들처럼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겠노라는 거창한 출사표에 혹해 K에게 표를 던졌던 주민들도 날로 더해지는 K의 횡포에 머리를 싸매고 누울 지경이었다는데.

K 자신은 동네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일인 만큼 주민들의 비난쯤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희생양을 자처했다지만 중립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객관적이지 않은 그의 행보는 파행이 아니라 전횡에 가까웠다. 특히나, 공과 사가 엄격해야 할 동네일을 처리할 때도 자격 미달인 사돈의 팔촌까지 두루 특혜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 과정에서 눈엣가시 같았던 사람들의 일거리를 빼앗아 넘겨주는 일도 속출했다.

무슨 대통령 선거라도 치른 것처럼 자신을 도왔던 최측근을 위해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들고, 공모 형식을 갖추기는 했으나 그 자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Y를 그 자리에 앉혔다. 한 개인을 놓고 보면 그럴만한 소양을 갖춘 사람일지도 모르겠으나, 글쎄다. 그 모든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간을 어지럽히던 그들로부터 흘러나왔을 게 분명한 소문의 진원지에서 풍기는 구린내는 많은 사람들을 배신감과 박탈감에 떨게 했다.

뿐인가. 동네에서 오랫동안 이어오던 이런저런 마을 행사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고, 동네 사람들이 꾸려가는 소소한 모임에 대한 지원도 예산 절감을 내세워 반 토막을 냈단다. 잘사는 동네를 만들겠다더니, 해를 거르지 않고 잘 따오던 이런저런 지원 사업 공모에 번번이 떨어지면서도 전임자에 대한 비방은 봇물 세례였고, 주민들이 오며 가며 들르기 편하라고 회관 입구에 마련했던 소박한 사무실도 볕 잘 드는 2층 널찍한 곳으로 옮겨 번쩍번쩍한 집기로 새 단장을 마쳤단다.

후안무치하게 거듭되고 있는 보은報恩과 보원報怨 사례로 온 동네가 때아닌 파벌과 암투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주민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많은 일들의 십중팔구가 K의 독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라도 하면 무슨 위원회니, 무슨 전문가니 하는 사람들과 검토를 하고 검증을 거쳤다며 두 말도 못 하게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K가 내세우는 무슨 위원회나 무슨 전문가를 본 적도 없었고, 모임의 대부분이 비공개로 열린 탓에 그런 모임의 말석에라도 앉아본 적이 없었다.

결국 K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이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지만…. 나랏일이든 어느 지자체 일이든 하다못해 작은 동네일이든, 공정성과 민주성, 효율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정성과 투명성마저 외면한 행태에 많은 이들이 공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어디에나 어물전 망신시키는 꼴뚜기는 있는 모양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확신하던 어느 지자체장이 본선은커녕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 됐다는 소식은 그래서 반갑다. 반성과 성찰, 변화와 혁신 없는 권력의 남용이 불러온 그의 추락이 부디 정의로 향하는 이정표가 되어 주길.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없다는 장자의 말처럼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을 넣을 수는 없는 일. 짧은 두레박줄로 깊은 우물물을 어찌 퍼 올린단 말인가. 그릇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이다. 그릇이 작고 크다는 것은 배움의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 달려 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했다.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이 말을 잘 알면서도 작은 것을 버리지 못해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참 많다. 눈앞의 명예에 연연해서, 한입에 집어삼킬 수 있는 떡이 아까워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에 취해서 타협하고 야합한다. 그것을 얻기 위해 간도 쓸개도 빼고 양심도 판다. 선거철이면 뭇 갑남을녀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존경과 사랑을 바치는 그들의 진심이 의심받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가장 못난 사람은 타인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고, 가장 좋은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 타인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했다. 어떤 자리든 이번에는 부디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영광에 겸손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충직한 공복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숫타니파타』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상의 가치를 '성실, 자기 절제, 관대함, 인내심'이라고 했다. 지도자는 여기에 도덕적 청렴성과 냉철한 분별력, 공정한 균형 감각, 강한 추진력과 책임감을 더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완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선택받은 그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선택한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서릿발 같은 응징으로 고쳐야 하고, 잘한 선택이었다면 아낌없이 격려하며 북돋아 줘야 한다. 『발심수행장』의 말씀처럼, 선택받은 그들이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새로운 시작이 부디 희망으로 가는 길이 되기를.

산책

아침이슬

김대곤
시인

창문으로 아침이
햇살 앞세우고 새 들의
노래 소리로 밤의
긴 시간들을 밀어낸다

밤새
내려앉은 별
그것의 영롱함인가
풀잎, 꽃잎에
신비로운 꿈의 색으로
맺혀있다

분명
별의 차디찬 아름다움과
아침의 이슬은
서로의 꿈인 듯 싶다

칼에 베인듯한 슬픔과
바람에 쓰러지는 서러움들을
서로서로 밤낮을 바꾸어 가며
위로가 되어 주는 하루의 연인

행복해지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6가지 마음 습관

묘원화 전수
벽룡사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습관(下)

죽음은 화제로 삼기에 불편하지만 우리의 삶을 깊고 풍부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입니다. 고래로 인류의 큰 스승님들은 죽음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생과 내생이 큰 차이가 없으며, 길고 긴 윤회 속에서 이생은 잠깐이며 미래생은 길기 때문입니다.

죽는 줄 알고 죽음을 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지금 죽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살아나고 모든 인연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영원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삶의 남은 날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좋은 말과 나쁜 말 중에서 어떤 말을 하실 건가요? 오늘 만나는 사람은 무척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더 친절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지만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살겠다며 큰 희망을 품지만 죽을 때는 후회로 가득 찬 가슴을 치면서 죽습니다. 선업을 쌓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죽음 명상입니다. 보통 지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깊은 죽음 명상을 체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경험을 살려 평소에도 틈틈이 죽음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바로 세우고 몸의 긴장을 풉니다. 숨을 천천히 깊이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숨을 내쉬면서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금방 늙고 금방 병들고 금방 죽습니다.
이생은 아주 짧습니다. 미래생은 아주 깁니다.
미래생을 위해 이생에 착한 일과 마음 공부에 힘써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왜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까?
왜 고통스러운 생각을 합니까?
왜 고통스러운 느낌만 붙들고 있습니까?
죽는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을 진정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은 죽을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죽으려면 착하게 살고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그것을 놓을 줄 모르기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힘들게 모은 재물과 힘들게 지킨 명예나 권력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선한 행동으로 가꾸어 봅시다. 이생의 습관은 미래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단순하게 살고, 죽음을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 봅니다.

미운 사람도 사라질 것이고
좋아하는 사람도 사라질 것이고
나도 또한 사라질 것이니
이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리라.

-『입보리행론』

모두에게 봄이 따뜻한 것은 아니다

김준섭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

潑潑川魚戲	발발천어희	팔딱거리며 냇물에서 물고기들 뛰어놀고
得得山鳥鳴	득득산조명	지천으로 산새들 울고 있는데
而我獨何事	이아독하사	나만 홀로 무슨 일 때문에
默默抱苦情	묵묵포고정	묵묵히 괴로운 마음 품고 있는가
穹壤莽無垠	궁양망무은	끝없는 아득한 천지처럼
積恨何時平	적한하시평	쌓인 이 한 어느 때나 평온해질까
三復晦翁語	삼복회옹어	회옹晦翁께서 하신 말씀 세 번 되뇌어본다
終不如無生	종불여무생	“결국 죽느니만 못하다”

– 어유봉(魚有鳳, 1672~1744), 『기원집(杞園集)』 4권

어유봉의 본관은 함종咸從이고 호는 기원杞園이다. 김창협金昌協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28세에 문과 초시에 붙었지만 복시覆試에서 자신의 시험 답안지가 바뀌는 부정을 당하자 과거에 미련을 버리고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다. 천거로 벼슬길에 나아가 승지와 시강원찬선 등을 지냈다. 18세기 호락논쟁에서 낙론계를 대표하는 명망 높은 학자로 평가된다.

위 시는 어유봉이 4월 한식을 맞아 선영이 있는 풍덕豊德으로 성묘를 갔다가 돌아오며 지은 작품이다. 물고기가 뛰놀고 새가 노래하는 화락한 봄날이건만 그는 왜 이토록 괴로워하는가. 풍덕의 선영에 함

께 잠들어 있는 아들 어도응(魚道凝, 1694~1709) 때문이다. 어도응은 1709년 4월 24일, 1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15세에 관례를 치르고 이듬해 장가도 못한 상태에서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만 것이다.

어도응은 어유봉에게 더없이 특별한 자식이었다. 어유봉의 첫 아들은 태어난 후 곧 죽었고 다음으로 어도응이 태어난 뒤 또 아들 하나를 얻었으나 그 역시 곧 죽었다. 세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식이 어도응이였다. 어유봉이 복시에서 답안지가 바뀌는 일을 당했을 때 당시 어른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는데, 대여섯 살 먹은 어도응은 "아버님께서 다시 과거를 보는 것은 옥을 진흙 속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진언하였다고 한다. 또 어유봉이 주역을 읽으면서 괘효를 알려주자 손으로 64괘를 그리고 이를 완상하는 등 무척 영리하고 특별한 아이였다고 한다.

어유봉는 아들을 보고 돌아오면서 두보의 「불귀不歸」가 떠올랐다. 「불귀」는 두보가 사촌동생을 애도하며 지은 시이다. 두보의 사촌동생은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 하북(河北, 허베이)이 함락되자 그곳에서 15세의 나이로 불귀의 객이 되었다. 두보는 3년이 넘도록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채 하북성 어딘가 묻혀 있을 사촌동생을 안타까워하며 마지막 시구에서 "얼굴 위로 삼 년간 쌓인 흙에는 봄바람이 불면 풀이 또 자라겠지面上三年土 春風草又生"라고 하였다. 어유봉은 이 10글자를 각 운자로 삼아 10편의 시를 지어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였다. 위 시는 그 10편의 시 가운데 마지막 수이다.

시 말미의 "회옹께서 하신 말씀을 세 번 되뇌어본다"는 무슨 말일까. 회옹은 송나라의 학자 주희朱熹이다. 주희의 큰아들인 주숙朱塾은 1191년 주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주희는 그해 오백풍吳伯豐에게 보낸 편지에서 "노쇠한 만년에 이런 화를 당하니 몹시도 견디기 힘듭니다. 바로 죽지 못한 데다 분수에 따라 버티면서 장례를 치르랴 아비 잃은 손자를 돌보랴, 하는 일마다 마음이 아프니 죽느니만 못합니다[衰晩, 遭此禍故, 殊不可堪. 旣未卽死, 又且得隨分支吾, 謀葬撫孤, 觸事傷懷, 不如無生也.]"라고 하였다. 10편의 시를 읊으며 아들을 추억하고 그리워해 보지만 결국 아버지의 마음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괴로움만 남을 뿐이었다.

자식이 떠난 4월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봄바람은 영원할 것 같던 겨울 추위도 녹였지만 한스러운 그 마음은 녹일 수 없다. 냇물에서 물고기가 뛰어놀고 지천에서 산새가 노래하는 따뜻한 4월의 봄이지만, 그 봄이 모두에게 따뜻한 것만은 아니다.

–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산책' –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립·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아름다운 부자의 비결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E美지〉〈솟대평론〉 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배제와 포용〉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흔히들 가난해서, 배우지 못해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자기 자신이 아닌 환경 탓을 한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분의 내러티브(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63세의 여성이다. 그녀는 우리나라 남쪽 끝 시골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얼굴조차 생각이 나지 않는다. 아버지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아버지들처럼 일을 하지 못하고 거의 병석에 계셨다. 경제력이 없던 엄마와 딸은 친가에서 조부모와 함께 살아야 했다. 초등학교에 입학은 했지만 끝까지 다니지 못했다. 엄마가 아팠기 때문이다. 역시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 아픈 엄마조차 그녀 곁을 떠났다. 그 후 그녀는 작은 아버지 집에서 살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다. 작은집 딸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정말 소처럼 일을 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아가, 시집가거라. 그래야 네가 이 고생을 면한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시집보내야지….'라고 하셔서 19살에 중매로 결혼을 했다. 할머니 생각은 자기가 죽으면 작은집에서 일하느라고 처녀귀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이다. 좋은 남자를 만나 부모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소원하셨던 것이다.

19살에 시집을 간 그녀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다. 그동안의 시집살이는 작은집 더부살이 못지않게 그녀를 힘들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줄 수가 없어서 목수였던 남편이 사용하는 오토바이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이들을 통학시켰다. 그리고 큰 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서울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푼푼이 모은 몇 푼을 들고 고향을 탈출하였다.

서울생활 역시 고달팠지만 그녀에게 서울은 희망의 삶터였다.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한만큼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남 좋은 일만 시켰지만 서울은 일을 하면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고 따뜻한 옷을 입히며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 가족에게 뿐만이 아니라 동네 어려운 분들을 자기 가족처럼 돌봐주는 이타심이 컸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은 물론 아이들까지 그녀를 좋아했다. 그 호감이 이웃 간의 신뢰를 형성하였고, 그 신뢰가 큰 재산이 되었다.

낡은 대로 낡은 3층 건물의 집주인인 할아버지가 혼자되신 후에는 자식처럼 할아버지를 돌봐드렸다. 아까워서 못 팔던 집을 이웃 할머니가 자신이 보증을 서겠다며 강한 믿음을 보이자 고집불통 할아버지였지만 그녀가 융자를 미리 받아서 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셨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온지 20년 만에 3층 건물 주인이 되었다. 칸칸이 전세를 주고 자기네는 아주 작은 공간만 사용하였지만 무일푼에서 건물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이었다.

그런데 5년 전 그곳이 재개발이 결정되어 그녀는 감정평가 결과 45평 이상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25평 2채를 받았다. 서울에 온지 35년 만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은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재산은 아이들의 성장이다. 모두 자랑할 만한 직업을 갖고 있다. 자식들이 엄마한테 이제 제발 쉬라고 하지만 그녀는 현재 장애인의 생활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사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그녀가 너무 훌륭해서 주위에 자랑을 한다. 그녀는 그야말로 맨땅을 일구어 큰 나무를 키워냈다. 그녀는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그녀가 주말 근무로 우리 집에 온 것은 그녀의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이다. 일요일 예배 때문에 주말에 일을 하지 않는 활동보조인이 많은데 그녀는 주말에도 일을 한다. 그녀는 진심으로 나의 불편을 덜어주려고 세심히 살핀다. 배움이 없어서 몸으로 하는 일은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봤다는 그녀에게 어떻게 활동지원사를 하게 되었느냐고 묻자 동네에 시각장애인 언니가 있어서 도와주다가 장애인을 보살펴주고 최고의 시급을 받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장애인 분들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보살핌으로 돈을 번다며 고마워했다. 그녀에게서 관세음보살을 느낀다. 노동으로 부를 쌓고 이웃을 가족처럼 돌봐주는 그녀야말로 존경받기 마땅한 아름다운 부자이다.

어디로 가야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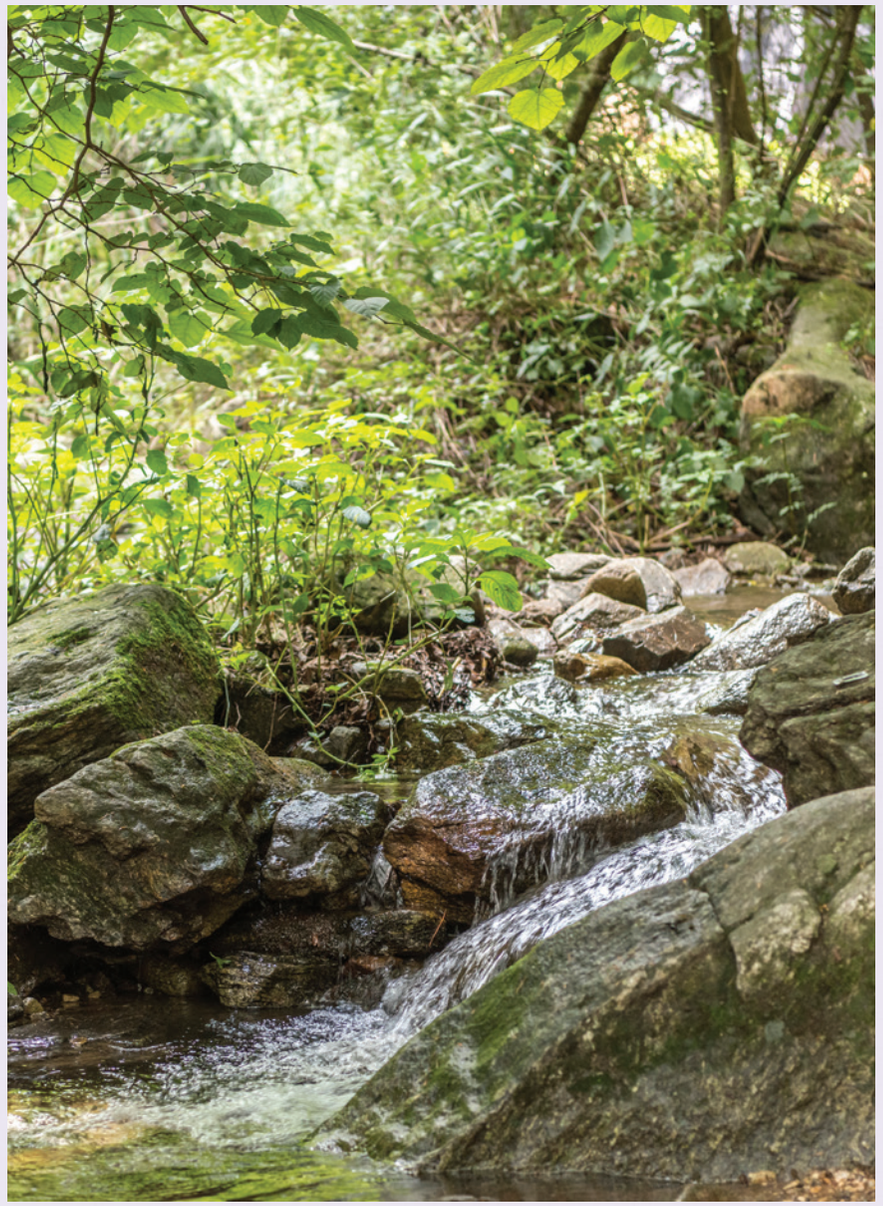
남혜 정사
단음사 주교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끝내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결국 새벽을 맞이했다.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였다.

요즘은 모든 것이 힘든 시기이다.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세상살이가 많이 힘들어졌다. 우리 종단도 마찬가지다. 헤어 나오기 힘든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도 언제나 어디에나 희망과 구원의 손길은 존재한다.

나는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부터 혼자 걷는 것을 좋아했다. 목적지를 정한 날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다. 혼자 가장 많이 갔던 곳은 부산 초읍 성지곡 수원지였다. 어릴 때 살던 서면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10분 거리지만 걸으면 1시간 거리였다. 성지곡 수원지는 어린이대공원 뒤편에 있는 호수이다. 성지곡 수원지와 어린이대공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시절 소풍과 사생대회의 단골 장소였다.

성지곡 수원지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동천을 따라서 내려왔다. 성지곡 수원지에서 시작된 계곡물은 시내



를 통과하면서 동천이 되어 내가 살던 서면을 가로질러 흘러간다.

초등학교 5학년 봄의 어느 날 성지곡 수원지를 한 바퀴 돌고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길의 작은 웅덩이에 수없이 많은 올챙이들이 작은 웅덩이에 갇혀 바동거리고 있었다. 어린마음에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바로 옆이 계곡물인데 생과사의 갈림길은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때 든 생각이 '얘들은 어디로 가나!'였다. 어떻게 보면 올챙이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운명을 바꿔줄 힘이 있다. 삶에 대한 간절함은 운명의 손길을 끌어 들인다. 그렇게 힘닿는 데까지 올챙이들을 계곡으로 옮겨주었다.

종교의 힘이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고, 진언을 외우는 것은 그런 간절함이 구원의 손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관세음보살님의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염송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벗어나기 힘든 상황일 때, 관세음보살님은 그 염송소리에 응답하시어 우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승직자는 그 믿음을 교도들에게 심어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승직자는 교도들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에 대한 질문의 답이다.

얼굴

김봉래
불교방송 전법후원국장

“자비스러운 얼굴은 아니라고 고백한 법정스님 말씀에 위안”

가끔 TV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세월이 사람을 참으로 많이 바꿔놓는다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어느 분은 젊을 때나 노년이 되어서나 한결같이 준수한 모습이라 존경심이 가는가 하면 어느 분은 몰라보게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해 놀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주는 교훈에 주목하게 된다.

얼굴이란 말이 ‘얼꼴’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얼굴은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 나이가 40살 이상 되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지라는 말처럼 살아간 흔적들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피부 곳곳에 주름들이 지난 세월의 기억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 그러면서 “야 너 참 고생 많았구나… 더 내려놔야지…” 하고 스스로 다짐하게 된다.

사실 얼마 전 TV에서 나를 본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부나 머리 등 성형적으로 신경을 써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조언을 들었다. 물론 나를 염려해주고 격려해주심에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가 됐구나 하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느껴졌다. 그래도 젊은 시절엔 꽤 동안이라는 이야기도 듣곤 했는데, 참 내 공부가 많이 부족했구나. 뭐 이 정도면 남을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그래도 불교를 모토로 살아온 인생인데 남과 뭔가는 좀 다른 점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부처님 덕분에 이 정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기는커녕 걱정까지 끼칠 정도다? 그렇다면 한참 반성해야 하지 않은가? 한 때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스스로 위안하던 때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실로 아쉽고 부끄럽고 많이 부족하여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얼마 전 어느 스님께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드리며 면목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안부 인사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찾아뵙고 지혜를 구하지도 못했고 변변한 도움 하나 드리지 못해 이런저런 미안한 마음을 담아 그저 면목이 없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

그랬더니 스님께서는 무슨 면목이 없다는 거냐며 격려하셨다. 다른 직장을 기웃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 방송에서 오랫동안 일한 공덕도 적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다. 정작 나는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핑계로 스님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송구스럽기만 한데 말이다. 스님의 너른 도량과 자비에 고개가 숙여진다.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은 생전에 어느 법회에서 솔직한 마음을 토로했다. 상좌인 덕조 스님이 낸 법문집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법정 스님은 가끔 거울을 보는데 당신 얼굴이 그렇게 자비스러운 얼굴이 아니라고 고백하셨다. 사람들로부터 찬바람이 불고 서슬이 퍼렇다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한다. 수행자가 시줏밥 먹고 살면서 얼굴이 이렇게 굳어서 되겠느냐고 늘 반성하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진다고 하셨다. 또 혼자 있을 때는 편하니까 웃기도 하고 혼자 싱거운 짓거리도 하고 편한데 밖에 나오면 긴장이 된다고 하셨다.

이런 법정 스님 말씀에 다소 위안도 된다. 스님처럼 출가 정진하지도 못했고 세속에 살면서 별다른 깨달음을 갖추지도 못했으니 뭐 얼마나 얼굴이 특별히 맑고 자비스러움 같은 것이 드러나겠나. 인생지사 모두가 자업자득自業自得이고 다 그 전에 살아온 모습이 드러난 것이니 당연지사가 아닌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공덕을 닦아 32상 80종호三十二相八十種好를 갖추었다고 한다. 그에 덧붙여 부처님께서는 크나큰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시니 양족존兩足尊이시다. 그러니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지혜와 복덕, 공덕을 닦아 나가자 다짐을 해본다. 꾸준히 노력하는 일 밖에 다른 수가 없지 않은가. 그래도 이 길을 가는 편이 제일 낫지 않은가.

디딤돌

생각 알아차리기

신진욱 법사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명상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명상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특정한 생각을 갖게 하는 방법이라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다. 명상은 어떤 특정한 생각을 제거하거나 텅 비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우리 자신을 이 순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 상태 그대로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지낸다. 이렇게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하지만 생각이 명상의 대상으로서는 매우 유용하다. 생각의 내용에 빠져 마냥 헤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자각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명상을 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평소보다 이런저런 생각이 더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 이때 마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하여 맞서 싸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일어난 생각에 맞서 싸우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쏟아져 들어오는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잡념이나 번뇌가 일어나면 이를 단순히 알아차리고 호흡에 마음

을 집중하면 된다. 계속 반복해서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마음의 알아차림은 점점 더 강해진다. 우리는 일어나는 생각을 관찰하고, 바라보면 된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바라볼 때 생각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통찰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키우려는 지혜는 머릿속의 시끄러운 생각이 아니라 알아차림에서 직관적으로 일어난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관찰하다 보면 생각은 마음 공간에서 일시적인 에너지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마음 공간에서 생각은 물결 하나도 일으킬 힘이 없다. 마치 햇볕을 받으면 사라지는 투명한 이슬방울과 같다. 이렇게 점차 관찰의 힘이 강해지면 일어나는 생각 자체를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생각의 본래 성질을 알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생각에 반응하지 않고 걸려들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심지어 마음에 계속 일어나는 생각에 미소 짓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 생각에 휩쓸리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순식간에 우리를 먼 곳까지 데려가기도 한다. 우리는 생각이라는 열차에 올라타는지도 모른 채 올라탄다. 물론 생각 열차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다. 한참을 생각에 휩쓸려가고 나서야 문득 정신을 차리고는 생각에 자신이 농락당했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깨달은 후에도 생각이란 놈은 아주 약삭빨라서 한 곳에서 지키고 있으면 느닷없이 다른 곳에서 비집고 들어온다.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 생각에 대하여 기민하게 깨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저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음에 어떤 종류의 생각이 일어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일상의 사고 흐름에서 벗어나 마치 강둑에 앉아 무심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듯 생각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으면, 생각에 빠져있는 것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면 점차 어떤 생각과 관계 맺는 방식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수행이 향상되면 서서히 생각의 영향력에서 풀려나 마음이 실제로 더 고요해지고, 마음의 관찰하는 힘이 더 기민하고 강해진다. 그리고 생각을 명료하게 보기 시작하며, 자기도 모른 채 생각에 농락당하는 일이 줄어든다.

하나의 등불

불교총지종 법장원

사위성에 난타라는 한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여인은 의지할 곳이 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걸식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갔다. 어느 날 온 성안이 떠들썩한 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바사익왕이 석 달 동안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옷과 음식과 침구와 약을 공양하고, 오늘밤에는 또 수만 개의 등불을 켜서 연등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성안이 이렇게 떠들썩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생각했다.

'바사익왕은 많은 복을 짓는구나. 그런데 나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나도 등불을 하나 켜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싶다.'

그리하여 여인은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여 동전 한 닢을 얻어서 기름집으로 갔다. 기름집 주인은 가난한 여인을 보자 동전 한 닢으로 기름을 사서 어디 쓰려느냐고 물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을 만나 뵙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그 부처님을 뵙게 되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나

는 가난해 아무 것도 공양할 것이 없으니 등불이라도 하나 켜서 부처님께 공양할까 합니다."

주인은 여인의 말에 감동되어 기름을 곱절이나 주었다. 여인은 그 기름으로 불을 켜 부처님이 다니시는 길목을 밝히면서 속으로 빌었다.

'내가 이 작은 등불을 부처님께 공양하오니 원컨대 이 공덕으로 내생에는 지혜를 얻어서 일체 중생의 어두움을 멸하여지이다.'

밤이 깊어가자 등불들이 다 꺼져갔다. 그때에 목련존자가 당번이었는데 날이 밝아오자 등불을 걷으려 하였다. 그런데 등불 하나가 홀로 빛나며 심지가 아직 생생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손으로 불을 끄려 하였다. 그러나 꺼지지 않았다. 가사자락으로, 또는 부채로 끄려 했으나 그래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밤새 다른 등불은 다 꺼졌으나 그 등불만이 이렇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그것을 보고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그 등불은 가난하지만 마음 착한 여인의 넓고 큰 서원과 정성으로 켜진 등불이다. 너희 성문으로서는 끄지 못할 것이다. 설사 큰 바닷물이 밀려오고 회오리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등불의 공덕으로 그 여인은 미래겁에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이 빈천한 여인은 가섭불 세상에 한 거사의 아내로 자신의 재산을 믿고 가난한 이를 업신여기고 자신의 공양을 먼저 받지 않은 부처님을 비방하여 오백생을 빈천한 과보로 걸식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밝힌 등으로 그 과보에서 벗어나 미래에 장차 부처가 될 수기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떤 선근으로 이와 같은 무진 등불 공양을 받으시게 되셨을까요? 과거세에 한 비구가 석 달 동안 등불 밝힐 시주를 권하고 향유와 등심지를 구하고 다니는 모습을 그 나라 공주 모니가 보게 되고 자신이 석 달 동안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모든 물건을 시주하였습니다. 이에 부처께서 석 달 동안 불공드린 비구에게 여러 겁이 지나 정광불이 될 것을 수기하셨고, 모니공주에게는 석가모니가 될 것을 수기하셨던 거죠.

육바라밀수행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보시행이 나옵니다. 보시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를 물질적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오롯이 내어 주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면 불행만이 올 것입니다. 난타여인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 보시하고 발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 선근을 쌓아가다 보면 탁하고 더러운 물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의 일상도 아름답고 맑은 삶을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총전』발췌

동행

아버지 전상서

김종구 각자
벽룡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가 어느덧, 49일이 되어 아버지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기원 드리고자 이렇게 아버지 영전에 자리하였습니다. 이렇듯 아버지 영전을 마주하니, 마치 주마등처럼 아버지와 같이했던 삶의 추억들이 꿈인 듯 스칩니다.

1939년 이 세상에 나오셔서 어머니와 부부의 연을 맺어 저희 다섯 남매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겉으로는 그 속마음을 다 표현 못 하시고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꿋꿋하게 지켜 가시며 휘적휘적 아버지의 길을 묵묵히도 걸어가시던 그 뒷모습이 저희들 가슴에 깊이 각인되어 애틋함과 먹먹함으로 남습니다.

사람이 한 평생을 두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하늘의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하늘의 입장이 되어 감히 아버지를 평가하는 위치라면 “아버지! 녹록하지 않은 고단했던 삶, 잘 살아내고 오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도 저희 다섯 남매 건강하게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심에 온 마음을 다해 깊은 감사를 올리며, 이번 생에 저희들의 아버지로 같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생에 아버지와의 소중했던 삶의 자취들은 이제 삶의 이정표

가 되어 저희들 가슴에 늘 함께 하시며 큰 힘이 되어 주시리라 믿고, 그 이정표를 따라 잘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올리며 극락왕생 하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이제 고단하셨던 삶의 흔적들일랑 뒤로 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소중했던 5남매 올림

차茶와 사찰에 관한 이야기 1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우리나라의 차나무는 어디에서 먼저 자라기 시작했을까요?

「삼국사기」에 보면 흥덕왕 때 김대렴이 당나라에서 차나무의 씨앗을 가져와 왕명으로 지리산 일원에 처음 심었다고 합니다. 그 후 선사 진각 스님이 차나무를 번식시켜 본격적으로 차가 보급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이규보(1168~1241년)가 하동 화개에 차 맛을 보러 갔다가 스님에게 백성들이 차 공납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글에 남겼을 정도로 그 지역에서 차 재배는 왕성 했습니다. 또한 스님들과의 왕래가 잦았던 추사秋史 김정희도 쌍계사의 만허 스님에게 직접 차를 얻어 마셨다고 합니다.

그 후,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차나무를 1975년 고산 스님이 쌍계사 주지를 맡으면서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차나무 종자를 다시 화개면 일대에 심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쌍계사 절 입구에는 차시배추원비茶始培追遠碑와 차시배지茶始培地기념비가 있을 정도로 차와 인연이 깊은 절입니다.

지리산의 또 대표적인 차 재배지가 있는 화엄사 일대, 화엄사는 544년 인도에서 온 연기 스님에 의해 사찰이 창건되었고 그 때 인도에서 가져온 차 씨앗을 심으면서 재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대렴이 지리산 일원에 심었다는 차나무의 시작이 화엄사인가, 쌍계사인가 하는 논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화엄사에 있는 사자3층 석탑(국보 35호) 앞에는 차를 공양 올리는 '석등헌다상'이 있으며, 쌍계사에는 수백년 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찰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신라시대를 거치면서 불교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차 재배, 지금은 전국 25%가 지리산 일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1762~1836년)이 유배 간 강진에 있는 백련사 또한 차이야기하면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백련사는 정약용이 머물던 다산초당도 가까이 있었고 아암 혜장 스님과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를 찾아가 차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전에 서로를 찾아 걸어갔던 길목인 백련암에서 다산초당으로 향하는 오솔길에는 야생 차나무가 가지런히 자라고 있습니다.

차를 공부하면서 문헌에서 배우는 것들도 많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 보는 것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햇살 좋은 하루, 그 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푸른 녹차 밭을 찾아가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요?

참고문헌 〈저절로 소확행〉〈문화유산답사기〉

나의 제주 블루스 上

lovely찌이

“놀멍 쉬멍 산이영 바당이영 몬딱 좋은 게 마씀었던 제주~”
(놀면서 쉬면서 산이며 바다며 모든 게 좋았던 제주)

제주에 가면 자연이 주는 선물이 항상 나를 기다린다.

사려니숲에서 받은 감동이 가슴 벅차다. 아직도 12년 전 처음 만났던 사려니의 기억으로 항상 제주에 오면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기대가 나를 제주로 부른다.

지난 8년 동안 쉼 없이 일한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여행. 우리 모자의 오랜만의 나들이다. 모두에게 그렇듯이 제주라는 단어만으로도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는 곳, 이곳에서 나는 나다운 제주를 즐겨 보려 한다.

1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제주 푸른 공기 속에서 맑은 숨을 쉬어 본다. 제법 쌀쌀한 밤공기에 살짝 기분이 업 된다. 우리가 묵을 호텔도 깔끔하니 만족스럽다. 룸 안의 스탠드 조명에 살짝 텐션을 높여줄 재즈를 들으며 아들과 치얼스~! 내일부터 어떤 그리움을 만나게 될까?

1. 새별 오름을 만나러 나서다

“제주도에는 360여 개의 오름이 있어 제주도를 ‘오름의 왕국’이라 부른다. 제주 사람들은 오름에서 태어나 오름으로 돌아간다고 할 만큼 그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오름은 일만 팔천 신들의 고향이자 목축업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오름이란, 작은 산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으로 각자의 분화구가 있는 소화산을 말한다. 제주여행의 참맛은 오름을 오르는 데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오름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말굽형 오름은 분화구의 일부분이 용암유출과 같은 요인에 의해 한쪽 부분이 침식되어 형성된 오름으로 화구 모양이 말굽과 같다하여 말굽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추형 오름은 분화구가 메워져 있거나 심하게 침식되어 뾰족한 형태의 오름을 말한다.

원추형 오름은 화산 분출이 끝난 후 단단히 굳지 않은 쇄설물들이 다시 분화구 속으로 흘러 들어가 형성되거나 점성이 강하고 유동성이 약한 조면암질용암이 화구에서 그대로 냉각되어 형성된 것이다. 정상부에 화구가 없으며 마치 삿갓을 덮은 모양을 하고 있다. 원형 오름은 산정상부에 원형 분화구(굼부리)를 갖고 있거나 산굼부리와 같이 분화구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형오름은 화구가 있는 형태로, 화산 활동 중 화산 가스만 많이 분출하고 그 외의 다른 분출물은 분출하지 않거나 분출하더라도 화산 폭발력이 매우 강할 때 형성된다.

그 중 우리가 만난 새별오름은 말굽형으로 완만한 경사가 있는 오름이다. 편자는 행운을 뜻하기도 한다. 세계 유명브랜드 중 편자모양이 많은 이유도 이런 기원인 듯 하다. 한발씩 내딛을 때 마다 느껴지는 행운의 기운을 듬뿍 담아 본다. 정상에서 넓게 펼쳐진 하늘과 끝이 닿아있는 들판의 제주를 바라보자니 이보다 더 고즈넉할 수가 없다. 좋은 기운을 많이 담아 언제든 이 기운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2. 차귀도로 발걸음을 옮기다

제주도 주위의 섬으로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우도, 차귀도 등이 유명하다. 가오리를 닮았다 하여 붙은 가파도, 마라도는 짜장면집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화산섬 비양도, 우도는 땅콩막걸리로도 유명하다.

그중 우리가 이번에 즐겨 볼 섬인 여러 개의 바위섬들이 모여 만들어진 차귀도는 바다와 억새와 바람이 어우러진 섬이다. 10여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리의 차귀도 유람선 선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차귀도로 향했다. 우리는 그 중 죽도를 느껴 볼 수 있다. 들어가는 길에 선장님의 설명으로 주변섬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차귀도는 죽도와 와도, 지실이도로 이루어졌다. 죽도는 대나무숲이 많아 죽도라 불려진다. 죽도에 도착해서 정상을 향해 걸어본다. 처음만난 계단을 올라가며 가쁜 숨을 쉬어 보지만 정상에서 만나본 대해는 잠시 앉아 바다멍을 하게 만든다. 주민들이 돌을 하나씩 날라다 만든 등대밑에서 바람을 느껴본다.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코끝에 닿는 바다냄새와 함께 아름다운 섬 제주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였다. 지금은 모두 큰 섬으로 옮겨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외로운 무인도가 되었지만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이 외로움을 달래줄려나? 정상까지는 30분이면 충분히 왕복할 수 있는 섬이었고 트래킹으로 힘들지 않은 코스였다. 차귀도는 낚시 하시는 분들께 더 유명한 섬이기도 하다. 내려오는 길 갯바위 위

에서 세월을 낚는 강태공들도 눈에 들어왔다. 유람선은 1시간 간격으로 우리를 데리러 왔고 배 안에서 둘러보는 와도는 임산부가 누워있는 모양새라 하여 와도라 붙여졌으며 지실이도는 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이어서〉

육자의 궤염송

사원에서의 예절 (上)

위드다르마 편집실

1. 합장례合掌禮

합장合掌은 고대 인도에서 전해 내려온 인사법으로 타인에 대한 공경恭敬과 예경禮敬을 나타낸다.

이 합장이 불교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어 중요한 예배의식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타인뿐만 아니라 신앙대상인 불상佛像과 스승에 대한 예경禮敬과 공경恭敬의 의미와 더불어 일심一心의 뜻까지 더하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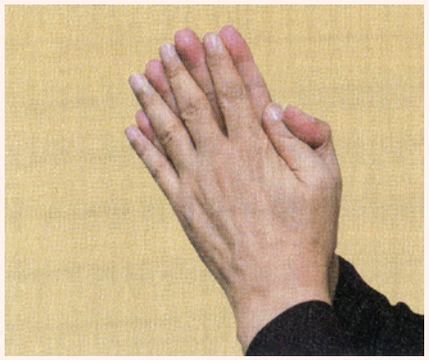
그래서 합장은 바로 행자 자신이 아상我想과 교만심을 이겨내는 수행이요,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하심下心의 첫 공부라고 할 수 있다.

『관음의소觀音義疏』 상권上卷에서는 합장을 '두 손을 하나로 하는 것은 감히 산란하지 않음을 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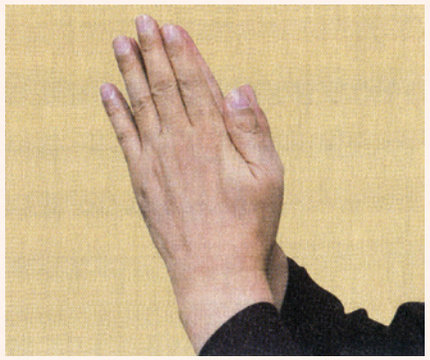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합장은 두 손바닥을 마주 보게 하여 합合하는데, 밀교密教에서는 이를 '금강합장金剛合掌'이라 하고, 현교顯教에서는 '연화합장蓮華合掌' 또는 '견실심합장堅實心合掌'이라 한다.

금강합장은 합장차수合掌叉手라고 하는데 양 손가락 사이를 서로

교차하여 합하는 것이고, 연화합장은 양 손가락을 서로 맞대어 붙이는 것을 말한다. 손가락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금강합장



연화합장(견실심합장)

밀교에서 합장은 부처와 중생의 합일合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그 공덕이 광대무량廣大無量하다고 보고 있다. 또 왼손은 중생세계요, 오른손은 부처의 세계로서 두 손의 합장을 통해 중생과 부처가 하나 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합장하는 방법은 양손을 '금강합장'하여 가슴에 붙인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몸을 45도 정도 앞으로 굽히는 것이다.

합장례의 대상은 본존과 스승님, 교도대중이다. 사원 경내에 들어설 때는 본당本堂을 향하여 합장 일배一拜를 하면서 경내에 들어서도록 한다. 서원당에 들어갈 때도 본존을 향해 합장례를 하고, 불

단으로 나아가 희사喜捨하고 향을 사르고 나서도 본존을 향하여 일배一拜로써 합장례를 올린다. 그 다음에 좌우의 법좌에 앉아 계시는 스승님을 향하여 합장례를 하고, 대중들에게도 합장례를 올린다. 이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서 상호 존중과 공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합장례를 한 후 제자리로 돌아갈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

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걸어간다.

본존을 향해 합장례를 할 때 공식법회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합장례를 올릴 때는 본존다라니를 향해 삼배三拜를 올리거나 그 이상 절을 올려도 무방하다. 그러나 공식법회 시에는 반드시 본존을 향해 일배一拜하고 뒤돌아서서 대중을 향하여 일배一拜한다.

2. 경내 예절

● 경내 도량에 들어서면 서원당을 향하여 금강합장으로 반배半拜를 올리고 부처님께 예경禮敬을 표한다.

● 경내에서 만나는 사람과도 서로 합장례를 올린다.

● 경내에서는 가래와 침을 뱉지 않는다.

● 경내에서는 엄숙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며, 세속적인 얘기를 나누지 않도록 하고, 큰소리로 떠들어서는 안 된다.

● 스승님을 뵙거나 교도끼리 마주쳤을 때에도 서로 합장하여 예를 갖춘다.

●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한다. 특히 짧은 반바지와 치마, 속살이 드러나는 상의를 입고 경내와 서원당을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 경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경내에서 음주가무飮酒歌舞를 하지 않는다.

3. 서원당 예절

● 서원당에 들어서면 본존을 향하여 금강합장으로 합장례를 올린다.

● 서원당에 들어올 때는 염송정진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들어온다.

● 서원당에 걸어 다닐 때는 발뒤꿈치를 들고 큰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다.

● 서원당에 들어와서는 반드시 불단으로 나아가서 본존을 향해 합장례를 올리고 희사와 향을 올린다. 희사 분향을 한 후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합장례를 올린다.

● 합장례를 할 때는 본존 정면에 서서 올리지 않는다. 본존에서 약간 옆으로 비켜 서 올린다.

● 서원당에서는 절대 떠들어서는 안 된다. 서원당에 들어서면 마음을 가다듬고 고요한 상태로 불공에 임하도록 한다.

● 설법시간에 옆 사람과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한다.

● 물건 등으로 서원당 바닥을 끌지 않도록 한다. 물건 끄는 소리는 대중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염송에 큰 마장魔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코를 풀거나 가래를 뱉는 행위를 절대 삼간다.

●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는 일을 삼간다.

발췌: 『육자의궤 염송』 법경 지음(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걸망에 담긴 이야기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는 용기

법일 정사
정각사 주교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한 여성이 있었다.

그러나 보는 오디션마다 낙방을 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에게 연줄이 없어서 그래. 예술계의 든든한 연줄만 있었다면 내 실력으로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을 들은 그녀의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너에겐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구나."

위로를 원했던 그녀는 충격적인 스승의 말을 밤새도록 되새겨보았다. 그러자 자신의 능력이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부족했던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게 된 그녀는 자신의 약점인 음역과 발성, 무대매너까지 파악한 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머지않아 그녀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에서 유명한 오페라 스타가 될 수 있었다.

구멍 난 주머니

바지의 한쪽 주머니에 늘 구멍을 내어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늘 메모지에 적는 특이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듯했다.

그의 친구가 말했다. "자네는 왜 한쪽 주머니에 구멍을 내고 다니고 또 사람들이 자네에게 하는 이야기를 메모지에 적는 건가?"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른쪽 주머니는 그대로 두고 왼쪽 주머니에는 구멍을 뚫고 다니네. 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칭찬이나 친절한 아름다운 이야기 같은 것은 오른쪽에, 욕이나 비난 같은 것들은 적어서 왼쪽 주머니에 넣어두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들을 꺼내어 보네.

언제나 오른쪽 주머니에는 많은 말들이 들어 있지만, 왼쪽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네. 좋은 일, 좋은 것을 기억하고 나쁜 일, 나쁜 말은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내가 평화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네."

불탑

위드다르마 편집실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에서 맨 처음으로 둥근 탑을 만들어 예배의 대상으로 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 까닭은 석가모니께서 열반하신 후 그 육신은 곧 화장되었으며, 그 유골은 여덟 나라에 나누어져서 각기 탑에 안치되었던 것이다.

인도 아쇼카 왕(Asoka: B.C. 272~232년경 재위)이 이들 최초의 8탑을 헐어서 다시 석가의 유골을 나누어 8만 4천의 탑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도 아쇼카 왕이 넓은 땅과 많은 백성에게 불교를 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많은 곳에 그처럼 많은 정사精舍를 세움으로써 절과 탑이 보급되었다. 이 같은 탑을 세우는 것은 곧 석가모니부처님의 유물을 봉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불교가 인도를 떠나 여러 나라로 전파될 때에도 이 탑을 중심으로 삼고 예배하는 방식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 같은 사실은 중국에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세워진 절이, 옛 기록에 따르면 탑만을 중심에 두고 이뤄졌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중국 최초의 절은 그 후에 이르러 탑 이외에 법당을 추가하여 이들과 함께 배열하는 배치법을 보임으로써 차차 우리 고대 절의 형태인 가람구성과 근접되어 왔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달된 것은, 중국과는 수백 년의 차

산치 대탑. 인도 중부 마드야 프라데쉬주의 수도 보팔 근처 북부 46km 지점에 위치

이가 있었는데 경문과 함께 불상을 갖고 왔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때 불상과 함께 불사리에 대한 지식도 동시에 전하여 왔다고 생각된다. 그 같은 불사리에 대한 믿음과 그 전달은 절을 건립할 때 탑을 세운 사실에서 추정할 수 있다.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에 앞서서 처음으로 그 곳에 9사寺를 세웠다고 하였으며(광개토왕 2년, 393) 이어서 금강사金剛寺터가 평양 청암리로 추정된 바 있었는데, 그것은 1983년 이루어진 발굴(평양 청암리 폐사지 조사 1937년도 고적 조사 보고)조사에서였다. 이 때의 조사에서는 절터 중심에서 8각을 이루는 거대한 건물 자리가 노출되어 그것이 고구려 시대의 큰 목탑 자리로 추정되었다. 절을 세울 때 불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탑을 그 중심에 두었으며, 규모는 곧 사리에 대한 믿음의 비중을 나타냈다.

발췌: 위드다르마 31호 윤승호 '불교미술 이야기'

뜻바루기

용사龍蛇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인도에는 예로부터 나가(Nāga 뱀) 신앙이 있다. 나가는 용왕, 용신, 코끼리, 혹은 뱀으로 번역되는 것으로 모두 물과 관련된다. 용신은 바다를 거처로 천공에 올라 비구름이 되고 지상에 보우寶雨를 뿌리는 대자연의 영위營爲이다.

태장 만다라에서는 최외원最外院 서쪽에 수천水天이 배치되어 있다. 도상은 사삭(蛇索, 뱀 모양의 밧줄) 또는 사신蛇身으로 나타난다. 만다라의 위치에서는 극히 낮은 신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수천은 베다 신화에서는 바루나(Varuṇa)라고 불리며, 원래는 태양신 그룹 아디티야(Āditya)의 우두머리로 태양과 함께 천계를 지배하는 물을 가리키고 있다. 토착신앙과 어우러져 나가로 되어간 것이다.

그런데 나가, 바루나, 수신水神으로서의 뱀은 모두 단순한 물의 신만이 아니라 우주 대생명의 중심이 되는 신이 된다. 인도에 있어서는 이 큰 힘이 용왕신앙이 된다. 그리고 이 위대한 힘이 석존의 덕을 보여주게 된다. 이는 석존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무칼 린다 용왕(Mucalinda, 혹은 무찰 린다Mucilinda)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똬리 속에 석존을 끌어들여 석존과 일체화한 모습이 된다. 또한 수하용왕상樹下龍王像 석주石柱는 정면에 가지가 무성한 보리수(수목신앙과 관련), 중앙의 옥좌에는 다섯 머리의 용, 나가 무칼 린다가 수호하고 있다. 보리수와 옥좌는 부처의 소재를 나타내지만 부처는 보이지 않고 용왕으로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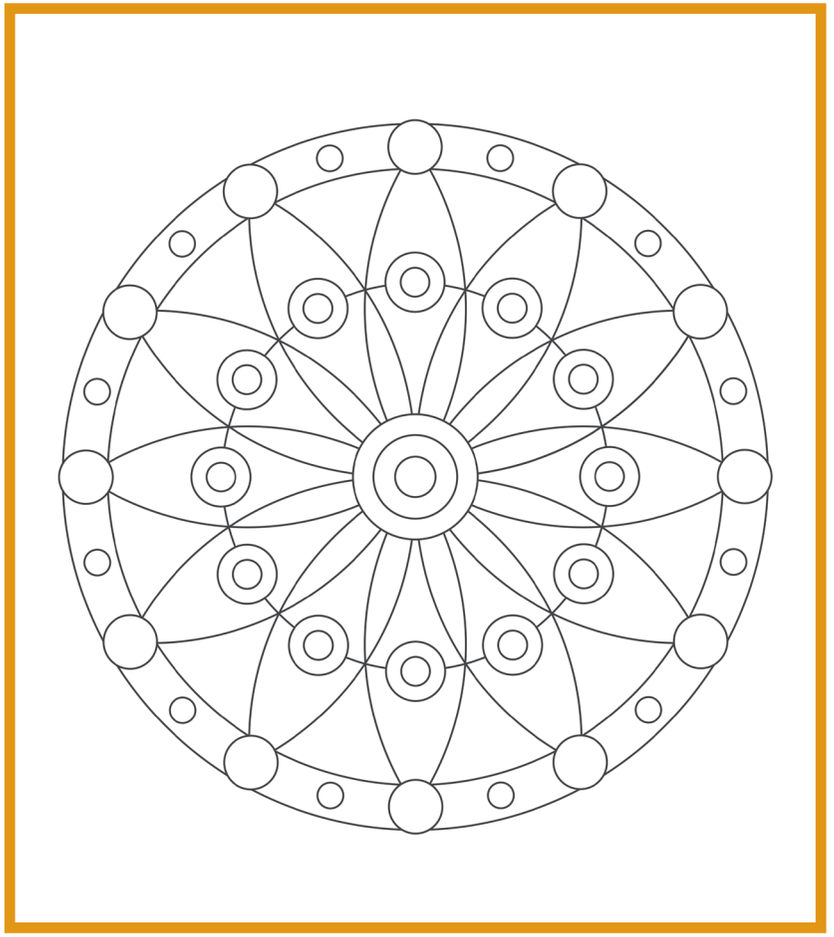
용왕으로 부처를 보여주는 신앙은 널리 불교에 계승된다. 『대지도론』3에 '큰 용왕은 큰 바다에서 일어나 큰 구름을 일으키어 온 허공을 두루 덮게 하고, 큰 번개와 광명을 놓아 천지를 밝게 비추며, 큰 비를 내려 만물을 윤택하게 한다.'고 설하고 있다.

고대 인도에서 나가가 대생명을 나타내는 예로는 라마그라마 스투파(Ramagrama stupa)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 가운데 탑이 있고 그 좌우에 나가가 배치되는 것이다. 탑은 부처 사리를 봉납하는 것이지만 사리신앙은 단순한 유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며, 또 탑은 봉분이 아니라 천지를 연결하는 대생명의 상징으로 궁극의 정토를 보여주는 것이다. 스투파는 밀교에서 대일여래의 상징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밀교에서 나가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주존主尊이 되어가는 예는 불공견삭관음(不空羂索觀音, Amogha-pāśa)에서 볼 수 있다. 『불공견삭경』은 이 입장에 선 경전으로, 그것은 일전一轉하여 대일여래가 되어야 할 존격이 된다. 불공견삭관음의 여러 손에는 각각의 기물을 가지고 교화구제에 힘쓰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존의 본질적인 상징은 사삭蛇索으로 나타난다.

또한 금강계만다라의 사섭존四攝尊인 구삭쇄령鉤索鎖鈴 속의 금강삭보살金剛索菩薩은 구제의 사역을 밧줄을 가지고 고해에 잠기는 중생을 만다라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존인데, 그 상징도형은 사삭으로 나타나 있어 나가의 힘을 정신적으로 높인 것이다.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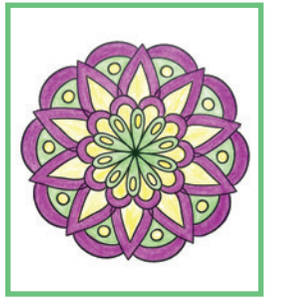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호 독자 솜씨

▲ 서울 박영자

▲ 서울 박이진

▲ 서울 심봉례



▲ 서울 전추면

▲ 대구 권영남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종 종보실
각 사원 주교님께 전달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불교총지종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진호국가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종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훔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 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숭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 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 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 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영원한 진리와 함께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종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희곤	법 공	성수진	손경옥	안한수
오승헌	오재원	오현준	이인성	이태림	이혜성
자선화	정법계	정재봉	정화연	총지화	한칠수

발 행 일 총기 51(2022)년 6월 1일
발 행 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박상우
발 행 불교총지종
주 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 화 02-552-1080~3
팩 스 02-552-1082

불교총지종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편집 후기

벌써 2022년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충분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아마, 잘한 일들과 못한 일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린 보통 잘한 것만 되새기며
자존감을 높이려하지만
못한 일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가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나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그로 인해 손해를 볼까봐,
혹은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걱정하며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기 일쑤입니다.

그만큼,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
나 스스로를 재평가 하게되고
나의 품격과 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용기 있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격조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허덕허덕 뜬세상 헤매이다가
센머리 어느덧 몸은 늙었네
분수 밖에 부귀공명 화가 되느니
얼마나 이 속에서 몸을 망쳤나
연연해 잊지 못하는 그이지만
엷은 가죽 한 꺼풀로 감싼 백골

- 환당 대종사 법어록 시편 -

www.chongji.or.kr

06
9 772733 976006
ISSN 2733-9769